

제17차 한국도서관협회 정기결



(총회 개회식 광경)

1971년도 제17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1971년 2월 22, 23일

장 소 : 교육회관 대강당

안 건 : 1. 개회식

2. 표창장 수여
3. 제3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4. 1970년도 사업실적보고
5. 1970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6. 임원 선출
7. 197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8. 1971년도 예산안 심의
9. 단체회원 등급조정 및 회비 인상안 심의
10. 기타

1. 개회식

사 회(사무국장) : 한국도서관협회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순국선열과 만치가신 동지자에 대한 묵념

국민교육헌장 낭독 : 이창세 전무이사

개회사 : 강주진 회장(별지 참조)

치 사 : 홍중철 문교부장관(김도창 문교부차관 대독) (별지 참조)

축 사 : 정태시(대한교육연합회 사무총장), 김경수(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별지참조)

2. 표창장 수여

본 협회와 최근만 사무국장에 대한 문교부장관 표창장을 김도창 문교부차관이 수여함.

3. 제3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제3회 도서관상은 강주진 회장으로부터 시상하다. (별면참조)

제17차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는 이창세 전무이사)



(총회 회순 및 회의 기록석)

성원보고 : 단체회원 534명, 개인회원 353명, 총 887명중 단체회원 207명, 개인회원 118명 위임 78명 총 413명 참석으로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성원됨을 최근만 사무국장이 보고하다.

의 장(회장) 전회의록 낭독이 있었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제16차 총회 회의록을 낭독하다.

—이의없이 통과되다—

4. 1970년도 사업실적 보고

의 장(회장) : 1970년도 사업실적보고가 있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1970년도 사업실적보고서에 의하여 상세히 보고하다.

1970년도에 총 37회의 제회의외 보조사업중 독서주간행사(제16회)완료, “한국도서관 통계” 1,000부 발행완료, 선정사업으로 70년도 1년중에 진행된 국내간행양서 1,026종을 선정하여 매월 월보에 게재, 도서관학총서 및 번역서 간행사업으로 4책 각 1,000부를 발간완료, 기관지 “도협월보” 12책 총 24,000부 발간완료, 서지사업회 사업으로 “구한말고문서해제목록” 발간완료와 “한국참고도서해제”의 원고 탈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도서관 및 마을문고 지도자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제9회 전국 관중별 도서관대회를 지역별(서울, 부산, 대전, 진주)로 개최 완료, 배부사업은 총 111종 26,434권을 수집 배부 완료, 지구협의회 및 부회육성사업, 표창사업 등을 완료하고 특수사업으로는 전국도서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검토하여 원고를 탈고하였고 한국도서관협회 장학금 적립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60여만원이 적립되었으며, 도서관인 해외훈련 앞선 사업등을 추진하였음은 물론 국제 교류활동사업도 활발하여 국제간에 협력의 기틀이 마련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 장(회장) 지금 보고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협회의 지난 한해 사업이 매우 활발하여 지나간 어느 해 보다도 보고내용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지금 보고 드린때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섭(국립중앙도서관) : 지난 해에도 관계요로에 건의를 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의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만(사무국장) 지금까지 총회 또는 도서관대회 등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계요로에 건의한 것에 대한 회신은 이미 월보에 모두 게재하여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의를 하고 회신을 받아 그것이 일선 도서관에 알려졌느냐 안알려졌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건의한 사항들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국에서 해결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주 희망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단결된 힘을 가지고 당국과 절충을 하여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사무국에서 건의된 것을 가지고 당국과 절충을 한다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책으로 수립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이 사회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류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갈망하는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정책에 부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 장(회장) 우리가 밤낮 건의서만 제출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아서 여러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며 제가 보아도 우리가 건의하는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서직 처우개선 문제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급 도서관에서는 이것을 쉼플로 해서 우리 사서직에게 특수 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다같이 캠페인 할 것을 이 사람도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서관협의 원비라든지 도서관계의 체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도 당장 해결하기 보다는 길게 보아서 적어도 70년대에는 모두 완벽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연구하고 힘을 합하여 관계요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간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도협의 사업내용이 새로

운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5. 1970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

의 장(회장) 1970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결산보고를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하다.

김중희(감사) 배부된 유인물에 대하여 회계감사결과를 자세히 보고하다.

의 장(회장) 지금 감사께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학총서 및 번역총서가 적기에 출판되어야 하겠고 회비납입성적이 좋아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할 만한 사업으로 그 동안 60여만원의 장학기금이 마련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절차로 보조금 지급을 삭감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여 69년부터 시작한 자체기금적립사업은 참으로 중요하며 어려운 실정이나 극복하여 나가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 자체의 힘으로 도협이 운영되 나갈 수 있으리라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회원 여러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속개—

6. 임원 선출

최근만(사무국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로 전임 임원의 임기가 모두 종료되어 이제 새로운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권중협(인천시립도서관장) 임시의장 선출은 새로운 분을 선출하여 참신한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식(대구시립도서관장) 임시의장으로 외국어대학의 도서관장으로 계신 이상조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추대하다—

최근만(사무국장) 외국어대학 도서관장으로 계신 이상조 선생님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렁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로 추대하다—

의 장(이상조) 도서관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여러 분들이 모인 이 자리에 임시의장으로 불초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의 경험이 많지 않아 진행하는 중에 서투르고



(회계감사 보고를 하는 김중희 감사)

어색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여러 분이 뜻하시는 대로 제 힘껏 임시의장의 임무를 충실히 해볼까 합니다.

의 장(이상조) 지금부터 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적절한가를 자유스럽게 말씀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섭(국립중앙도서관) 정관 제11조 3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지역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관종별로 평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평의원 선출을 위한 전형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첫째로 관종별로 1명씩 4명과 지역대표 4명, 그리고 개인 1명 합해서 9명의 전형위원을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9명 전형위원의 명단을 말씀드리면 김경일, 김중문, 이철규, 박용철, 손성우, 윤혜승, 오영환, 박치옥, 이재철 선생을 전형위원으로 모실 것을 동의합니다.

조재후(부산시교육위원회) 먼저 동의해 주신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약간 개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위원 9명에 전문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추가하여 11명으로 할 것을 개의 합니다.

우대섭(구미무역 주식회사) 지금까지 전형위원수를 9명으로 하자는 안과 11명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제 의견으로는 전형위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지역별 관계없이 관종별 각 1명과 개인 1명 합계 5명을 전형위원으로 할 것을 재개의 합니다.

의 장(이상조) 개의를 동의안 9명에 2명을 추가하여 11명이요 재개의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상 먼저 재개의를 묻겠습니다.

김문현(진주시립도서관) 동의와 개의에는 전형위원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재개의에도 명단을 발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대섭(구미무역 주식회사) 회의진행상 방법만 물었기 때문에 명단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명단을 발표하면 공공에 김경일, 학교에 윤영길, 대학에 백린,

특수에 박계홍, 개인에 이재철 선생을 추천합니다.

현규섭(국립중앙도서관) 제가 동의한 안에 대하여 개의는 추가안을 내셨는데 동의한 측에서 그 의견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의 장(이상조) 안이 두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일동 거수로 하자고 함—

—표결을 한 결과 동의 87표, 재개의 76표로 재석 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됨—

의 장(이상조) 표결을 한 결과 두가지 안이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승(영남대학교 도서관) 전형위원을 관종별로 하되 관종별마다 2명씩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문현(진주시립도서관) 관종별로 2명하고 임시의정부를 포함하여 9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병목(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전형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처음 재개의의 5명과 동의의 9명중 지방을 대표한 4명을 합하여 9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 장(이상조) 전체 의견을 종합해 볼때 전형위원 수를 9명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전형위원수를 9명으로 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일동 찬성하다—

그러면 전형위원수는 9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지방별, 관종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원을 정리, 명단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강부필(동양공전)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이철규, 손성우, 오영환, 이재철, 김종문, 윤혜승, 박치욱, 박용출씨를 전형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병목(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개의로 조재우, 김원용, 원종민, 박치욱, 김경일, 백린, 박계홍, 오영환 이재철, 선생을 추천합니다.

의 장(이상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전형위원으로 추천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위원을 소개하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결과 동의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다—

이제 선출된 9명의 전형위원이 평의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하든지간에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인 것임을 명백히 밝혀 두겠습니다. 평의원을 선출하는 동안 잠깐 휴회 하겠습니다. (전형위원 별실로 옮김)

—10분간 휴회—

의 장(이상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형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선출한 평의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김경일**(국립중앙도서관)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한 평의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98명의 평의원 명단을 발표하다—

(별면 평의원 명단 참조)

의 장(이상조) 이제 평의원 선출이 끝났습니다. 정관에 보면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에서는 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사선출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총회는 휴회를 하고 기다렸다가 선출된 이사를 총회에서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총회는 이만 산회하고 내일 총회에서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권재식(대구시립도서관) 내일도 회의가 속개되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의 장(이상조) 그러면 내일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전경)

■ 제2일 ■

7. 197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사 회(사무국장) 어제 이사회에서 장시간동안 민주적인 방식으로 논의하여 배부한 명단과 같이 임원선출을 하였습니다. 선출된 임원을 승인하는 뜻에서 박수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로 신입원을 승인하다—

그러면 새로 취임하신 강주진 회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강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회 장(강주진) 이 사람을 다시 회장으로 중임시켜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틀이켜 보면 제가 일해 온 과거 2년동안에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책임도 느껴 새로운 분이 회장으로 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읍니다만 여러 분들이 저를 다시 뽑아 주셨으니 미력하나마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분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는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발전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도서관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 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전환기에 처해 있는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하여 도서관 발전에 힘써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협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력으로 성심껏 일해 볼까 합니다.

사 회(사무국장) 다음은 회순에 따라 1971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대권(총무부장)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하게 보고하다.

(보조사업)

- ① 독서주간행사 ② 도서관통제 발간사업 ③ 도협월보 발행사업 ④ 도서관학총서 및 번역서 발간사업
- ⑤ 서지사업 ⑥ 선정도서사업 ⑦ 국제교류활동사업 (자체사업)

- ① 전국도서관대회 ② 독서주간행사 ③ 배부사업 ④ 지구협의회 및 부회보조사업 ⑤ 표창사업 ⑥ 조사연구사업 ⑦ 자료실 운영사업 ⑧ 보급운영사업 ⑨ 적립사업 ⑩ 기사사업

아울러 예산안을 항목별로 보고하다.

회 장(강주진) 지금 7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원호(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최근 독서운동이 도서관계에서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주위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독자들은 도서관과 독서운동을 연결지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현대적인 새로운 면면을 추구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도서관운동에 근본이 되는 독서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독서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을 하는 한편 새롭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발전있는 사업을 조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장(강주진) 현재 예산상의 제약으로 만족한 독서운동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효과적인 독서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박치욱(경북교위 도서관) 중앙에서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지구협의회 사업이 예산의 부족으로 극히 저조한 듯 합니다. 앞으로 지구협의회 육성을 위해 좀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 장(강주진)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모이는 이 총회가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차츰 지구협의회의 권위도 향상되고 지방의 도서관도 중앙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손성우(전국대학교 도서관) 도서관학총서 및 번역서 발간에 있어서 도서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부터 발간을 하였으면 좋겠고, 배부사업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여 보다 회원도서관에 혜택을 많이 주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 장(강주진) 총서 및 번역서 발간순위는 도서관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 부터 발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집필자의 원고가 계획대로 탈고되지 않고 계획된 사업은 예정대로 분기에 따라 기일내에 발간하여야 하므로 탈고된 원고부터 발간케 되는 애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사업은 앞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유익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협회 운영에 모두 반영시켜 여러분의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과 예산에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이 선출하신 이사회도 있고 하니 이사회에서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9. 단체회원 등급조정 및 회비인상안 심의

회 장(강주진) 다음 안건은 단체회원 등급조정 및 회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협회 표창을 받는 강주진 회장)

비인상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근만(사무국장) 이 안은 지난 16차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 이사회에 일임을 하였고 이사회에서는 이것을 일차 검토한 후 전문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행정분위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여 결정된 안을 2차 이사회에 상정하여 검토 수정을 하였으나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2차 이사회에서는 다시 행정분위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행정분위에서 재검토를 하여 지난 제3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회 장(강주진) 사무국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경일(국립중앙도서관) 사무국에서 설명한 단체회원 등급 조정과 회비인상은 제가 알기로는 약 2년간 심의, 숙고해서 서너번 안을 수정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사회에도 두번정도 상정이 되어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 수정된 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70년도 총회에서 인성기로 결정하여 구체적인 안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재정, 삼정—

회 장(강주진) 모두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면 박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우렁찬 박수로 통과시키다—

회 장(강주진) 기타 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제17차 총회는 이것으로 마치고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 사 소 식

정필모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
임 부교수(2.28부)

김세익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임 교 수(3.1부)

김두홍 (전) KORSTIC 자료관리국장
(현) KORSTIC 소장(3.1부)

김종희 (전) KORSTIC 자료수집과장
(현) 국방과학연구소 도서실장(3.1부)

조원호 (전)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현) 부산해양대학 전임강사

박동규 (전) 김포농업고등학교 사서교사(3.1부)
(현) 영북중실업고등학교 사서교사(주임)

海外學術雜誌購讀案内

KOP Subscription Guide

⇒敝社는 国内唯一의 셉스크립션; 에이전시로서 文化公報部의 許可(第50号)를 얻어 外国定期刊行物 予約業務를 開拓하여 왔으며 數年間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傘下 輸入代行機關입니다.

對內的으로는 여러가지 惡條件을 克服하고 業務擴張에 따른 能率의인 事務体制을 이룩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世界의 坊坊曲曲을 커바하는 屈指의 代理店과 巨大한 出版社 1,500餘社와 業務를 提携. 龍대한 海外 셉스크립션, 네트워크를 形成하므로써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人文, 科學技術情報의 供給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數量의 多寡를 不問하고 購讀者 諸位의 셉스크립션 인포메이션 리퀘스트에 應하고 있어오니 많은 利用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락 즉시 案内書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日本書籍販賣案内《

⇒今般 敝社는 日本 丸善株式會社와 代理店 契約를 체결하고 建築設計資料集成 시리즈를 独占 販賣하고 있어오니 고객제위의 많은 利用있으시기 바랍니다.

書 名	著 者 名	出版社名	日 価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一卷	丸善 編	丸 善	¥ 3,0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二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三卷	丸善 編	丸 善	3,5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四卷	丸善 編	丸 善	3,700
建築設計資料集成 第五卷	丸善 編	出 版 中	
建築設計資料集成 第六卷	丸善 編	丸 善	4,800

(기타 建築·土木關係書籍 多量 販賣中)

Ⓜ 丸 善 株 式 會 社

韓國總代理店

Ⓚ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

서울特別市 鍾路1街 71 永韓빌딩
雜誌 業務部 74-3783
書籍 販賣部 73-4262